

##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허윤\*

1. 서론
2. 잠재적 불량소녀의 탄생
  - 2-1. 소년범죄 전문가의 등장
  - 2-2. 사춘기의 성적 변화와 불량소녀의 과잉재현
3. 제3자화된 불량소녀와 수기의 형식적 불일치
4. 결론

### 국문요약

『여학생』의 불량소녀 수기는 불량청소년 문제가 국가와 전쟁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적 전환을 재현한다. 개인의 고백과 반성을 통해 사회는 다시 정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통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여학생으로서의 몫을 할당하는 치안의 영역이다. 국민들의 삶을 통치하는 치안 권력이나 검열, 섹슈얼리티에 대한 계몽담론 등은 파시즘적 민족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적대를 생산한 것이다. 그러나 불량소녀 수기들은 이 정치적 경관의 여백에 탈주선을 긋는다. 소녀들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한다. 이러한 결절점은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은 순간의 선택에도 불량소녀가 될 수 있으니 가정과 부모가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공론장과 충돌한다. 그럼으로써 10대 여성을 모두 순결한 여학생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불량소녀와 순결한 소녀의 이분법

---

\* 한신대 강사

이 강화될수록, 박정희 체제의 산업화를 지탱했던 10대 여성노동자들은 보호해야 할 '소녀'로부터 멀어진다. 하얀 칼라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 이외의 다른 10대 여성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 여학생이라는 환상은 불량소녀라는 정치적 상상이 체제의 통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소녀들의 수기는 이 매듭점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균열의 지점을 재현하고 있다.

(주제어 : 불량소녀, 『여학생』, 수기, 박정희 체제, 사춘기)

## 1. 서론

1958년 법무부와 부흥부는 9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년원을 건축할 긴급 재정원조를 주한미국 경제협조처에 제출한다.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소년 불량배의 교정시설은 겨우 2,3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었고, 갇생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시설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 평균수감기간은 2달이 채 되지 않았다.<sup>1)</sup> 정부는 새로운 소년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미국의 사회복지 고문관 버나드 코간에게 위탁한다.<sup>2)</sup> 그는 1960년 3~6월에 걸쳐 한국의 불

1) 1960년대로 넘어가면 평균 3개월 정도의 수감기간을 유지한다.

2) “귀하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부면을 여지없이 파괴한 한국전쟁 이래 양친을 잃은 10세서 20세까지의 거대한 숫자의 청소년이 집을 잃은 채 거리를 방황하다가 끝에 가서는 불량아 되고 만다.”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소년들을 수용할 현존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불과 4개소이고, 그 총 수용능력도 겨우 2,300명이니, 1958년도 불량소년 총수 75,929명에 비해볼 때 너무나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나드 코간(사회복지 고문관 청소년 불량), 『한국 청소년 불량문제에 관한 보고』, 주한미국 경제협조처 기술협조부 지역사회개발국 사회복지과, 1960, 1쪽.

량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결과, 한국 불량 청소년 문제의 특징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한다. 우선 여자범법자 대 남자범법자의 비율이 1대 9로 “소녀들이 비교적 잘 보호받는 모양”이며, 소녀들의 경우는 다 ‘매춘부’라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소년의 경우, 불량청소년이 될 위험이 있는 자와 범법자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구두담이, 신문팔이 등의 청소년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 자군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난으로 인한 불량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세 번째 특징과도 이어진다.<sup>3)</sup> 세 번째로, 한국의 청소년 불량 문제는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요인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전제민, 전쟁고아 등이 불량청소년이라는 지적과도 통한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청소년범죄를 여경이 전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한국사회에서 불량청소년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단 불량청소년의 성비가 1대9에 달한다는 것은 시설에 수감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 소년원은 전쟁고아, 전제민고아를 두루 수용하는 보호시설이었으며, 코간이 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범법자와 위험이 있는 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채 수용되었다. 이러한 소년원 시설에 소녀가 적다는 것은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 갱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1950년대 10대 여성들은 식모나 성매매여성으로 절도, 유괴, 성매매 등의 범죄에 이름을 올렸다. 예를 들어 식모의 경우, 식모의 절도나 유괴 등이 자

3) 버나드 코간, 위의 책, 9쪽. “소년들에 있어서는 우범, 즉 불량이 될 위험이 있는 자와 범법자 즉 이미 죄를 범한자와의 구별이 모호하다. 우범적 소년들로는 죄우간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두담기, 신문팔이, 너마줍기, 뚜장이, 스리키, 뽀이(좁도적) 등이 있다.”

주 보도되곤 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런 10대 식모들의 경우, 소년원의 보호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았다. 절도를 저지른 식모는 소년범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는 절도범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1950년대 소년범죄를 둘러싼 시스템이 젠더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설에 수용된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여성 불량청소년은 어디에서 처벌, 보호, 갱생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는 것이다.

김원은 불량청소년 문제를 구체적인 소년범죄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을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로 본다.<sup>5)</sup> 그리고 1967년을 기점으로 범죄 소년을 생산적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 ‘갱생소년건설단’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sup>6)</sup> 그런데 이때 생산적 주체로 갱생,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은 소년

4) 1950년대 동아일보를 살펴보면, 식모가 피해자인 경우가 5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9건, 자살이 10여 건 등 식모 관련 범죄가 다수 보도된다. 또한 10대 식모들의 자살도 매년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였다. 이중 식모가 범법자로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모가 절취행위 20만원 든 가방 갖고 도주, 1954.2.16 (16세 식모가 절도); 식모가 영아 업고 뺑소니, 1955.9.19(17세 식모가 아이 납치, 자살); 밥에 쥐약 혼입 도둑질한 식모 소행, 1955.5.28. (13세 식모가 절도, 독살시도); 재산 탐나 '밥에 양젓물', 1958.7.19.(13세 식모가 교사에 의해 독극물 투여); 식모 유괴 3건, 1959.5.19.(17세, 16세 식모가 유괴, 15세 식모가 절도); 남산동 강도사건 연출한 16세 식모, 1959.12.23.(16세 식모가 강도사건으로 속여 절도); 집나간 식모 어린애 업은 채로, 1959.10.29.(17세 식모가 5살 아이와 함께 실종); 어린 식모에게 난행을 강요, 1959.5.12.(15세 식모에게 성매매 알선); 식모 뺑소니 주인집 딸 업은 채, 1959.6.19.(15세 식모가 현금절도, 유괴 시도); 식모에 구속영장, 1959.10.29.(16세 식모 절도); 우물에 투신 16세 식모 자살, 1959.5.11.; 징역6개월 구형 15세 소녀 절도사건, 1959.12.9. 등이 있다. 이러한 식모 사건은 1970년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데, 1960년대 이후 식모와 연관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김원, 『식모는 위험했다? 산업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을 둘러싼 담론들』, 『여공 1970』, 이매진, 2005, 127~189쪽 참조.

5) 김원, 『소년원을 탈출한 아이들: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2011, 383~413쪽.

6) 『경향신문』 1967.5.10 10일 상오 10시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5백여명의 원생들로 조직된 갱생건설소년단결단식이 거행됐다. 16세 이상 20세 이하의 국민학교 이

범들뿐이다. 그렇다면 소녀범죄자들은 어떠한가. 범죄소녀가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범죄소녀의 갱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본고는 불량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에서 누락된 불량소녀에 관한 담론에 주목하려고 한다. 1950년대까지 불량청소년의 영역에서 비가시화되던 불량소녀는 10대 여성을 소녀, 혹은 여학생이라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과잉재현되기 시작한다. 본고는 불량소녀 담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이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몸피를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인 불량소녀가 어떤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불량소녀를 둘러싼 수기를 중심으로 불량소녀의 목소리가 통치 이데올로기와 길항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불량소녀 담론이 재현하고 있는 소녀상과 빚어내는 굴절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박정희 체제 통치성의 양방향성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2. 잠재적 불량소녀의 탄생

### 2-1. 소년범죄 전문가의 등장

1950년대는 불량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환경적 조건에서 찾았다. 그러나 전쟁으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 국가와 사회를

---

상을 졸업한 모범원생들로, 오는 11월말까지 서울 주변의 각종 도로공사와 산지개간, 경지정리사업 등에 투입된다.

재건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불량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소년경찰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목소리이다.<sup>7)</sup> 이러한 전문가 담론의 등장은 소년범죄는 심리학적, 의학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의학, 심리학 전문가에 의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1950~60년대 불량청소년 문제의 전문가인 권순영은 사춘기의 의학, 심리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량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순영은 전직 서울지법판사이자 서울아동상담소장인 변호사로 청소년 문제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권순영이 주장하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 중 대표적인 것은 학생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감시,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을 조사하여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불건전한 장소에 출입하는 학생이나 밤 9시 이후에 보호자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을 무조건 검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지르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미리 적발, 검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불특정 다수의 청

7) 권순영, 「소년비행의 숙제」, 『경향신문』 1964.12.21.

권순영은 소년비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경찰을 전문화하고, 사회사업, 심리학, 교육학과 졸업생을 배치하는 것, 보육원을 개편하여 교정시설로 전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8) 권순영, 「학생범죄에 대한 관견(하)」, 『경향신문』 1956.12.18.

학생범죄의 미연방지책으로 1. 소년법은 절대로 치안재판에 회부치 말고 소년법원으로 보낼 것, 2. 무계출결석학생을 조사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함으로써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대책을 세울 것, 3. 하학시간 이전에 거리에 다니는 것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학생으로 취급하여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 4.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 또는 선생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자를 소년법원으로 보고할 것, 5. 극장, 당구장, 다방 등 불건전한 장소에 출입하는 학생은 무조건 경제가 검거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것, 6. 밤 9시 이후에 보호자동반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은 무조건 검거할 것 등을 제시한다.

소년을 잠재적 불량소년, 소년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법적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량청소년 문제가 치안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의 원칙이 청소년들의 삶을 구속하고, 학생을 잠재적 불량 대상으로 보아, 불량청소년을 생산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사회 안에 자리와 위계를 분배하고 그에 따라 자격과 권리를 할당하여 주어진 권리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즉 어떤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할하고 그 분할을 유지하는 것을 '치안'(police)이라고 정의한다. 치안은 주어진 사회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활동일 뿐이며, 특정한 양상으로 분배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는 몫이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고, 권리 없는 자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1950년대 남한 사회는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반공과 빨갱이의 분할을 바탕으로 하는 치안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분할선 바깥의 몫없는 자들인 비-국민, 비-시민들은 통치 테크놀로지에 의해 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보면 이들 비-국민, 비-시민들을 근거로 하여 남한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9)</sup>

발리바르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연결시키면서, 국민적 정체성은 항상 투사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짜 자국민'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검둥이' 같은 '가짜 자국민'에 관한 가시적 이미지나 착각에 의한 표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sup>10)</sup> 눈에 보이는

9)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08, 133-138쪽.

10) Balibar, "Is there a Neo-Racism?", *Race, Nation, Class*, Verso, 1991, pp.17-28.

‘가짜 자국민’으로부터 강박관념적으로 ‘진짜 자국민’을 상상하는 메커니즘은 민족주의의 병리성을 보여준다. 이를 뒤집으면 진짜 자국민은 가짜 없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가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빨갱이, 범죄자, 불량소년/소녀 등의 ‘비정상인’이다.<sup>11)</sup>

이 ‘비정상인’에 대한 낙인은 매우 넓은 경계를 갖고 있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의 대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뿐 아니라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침착하여 죄를 범할 염려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경찰국장으로부터 송치된 자”로 규정한다.<sup>12)</sup> 1963년 개정된 소년법은 조사 감별의 강화와 우범소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 “보호자의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가정 이탈 및 범죄성, 부도덕한 자와 교제 그리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소년범으로 규정하였다. 즉 가정 환경과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소년들을 임의로 규정,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량청소년을 취급하는 소년법, 감화원법 등이 아동복지 사안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1959년에 기초한 아동복지법안에는 불량이나 보호를 요하는 우범아동이 조항에서 빠져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량소년과 요보호소년 사이의 구분이 없었던 식민지 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sup>13)</sup> 그렇다면 소년원법 개정 이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11) 일차적 대안으로 주어진 소년원은 재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학, 심리학, 가정관리학, 사회사업, 법학 등 냉전 지식체계에 의해 정상인과 대조되는 ‘비정상인’으로 낙인 찍는 효과를 낳았다. 김원, 앞의 책.

12) 『경향신문』 1958.7.13.

이는 공론장이 청소년 불량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격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 2-2. 사춘기의 성적 변화와 불량소년의 과잉재현

1960년대 불량청소년의 원인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개인적, 심리적 차원으로 옮겨온다. 소년문제 전문가는 불량청소년은 성격 이상이나 의학적 이유로 생겨나고, 감수성과 표현력이 강한 소년시절은 반항과 배타의 나이로서, 전쟁과 가난으로 정화 없는 사회에서 애정에 굶주린 소년소녀들은 비행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 된다고 주장한다.<sup>14)</sup> 이제 불량청소년 문제는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량청소년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개인으로 그려진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잡지 『여학생』의 불량소년 수기이다.

13) 실제로 1950년대 불량청소년에 대한 교정시설은 대부분의 법조항을 1942년의 일본법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었다. 일제는 1942년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 ‘교정원관제’를 공포하여 ‘경성교정원’을 설치하였고, 이는 해방 이후 소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58년 제정된 ‘신소년원법’은 ‘반사회적 경향이 있는 소년에게 보호조치를 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범법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줌으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일본법과 미국법을 섞어 만들었다.

14) 권순영, 「소년법의 중요성」(상), 『경향신문』 1958.7.12.

“중기일로에 있는 소년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그 방면의 연구자로서 소년법안의 시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조사기관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소년범중에는 부모나 본인의 정신박약 또는 성격이상인 경우인 경우가 상당수에 있다. 그러므로 소년법에는 반드시 아동상담소, 소년감별소, 의료소년원제도가 필수적 조건으로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소년범죄의 원인을 구명하여 예방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숙제(3) 소년범죄 해부』, 『경향신문』 1964.12.21.

1965년 12월 창간된 잡지 『여학생』은 1960~70년대 높은 인기를 누린 10대 대상의 잡지로, 1990년대까지 발행되었다. 여학생사의 사장 박기세는 1971년 잡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영상을, 1984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는 『여학생』의 인기와 계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여학생』의 창간사에서 사장 박기세는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양지이되 지식의 보급이나, 진학을 위한 어드바이서가 되느냐, 우리 여성들의 가난한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의 역이 되느냐의 진로를 찾기 수개월-결연히 면모를 형상화한 것이 교양지가 되되 우리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 역이 되자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한다.<sup>16)</sup> 이는 『여학생』이 10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학생』은 교양지로서의 성격과 진학과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의 카운슬링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권말의 상담실 코너를 통해 독자들의 진로와 심리 상태에 대한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불량학생들의 수기를 통해 품행을 선도하는 등 계몽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구성은 한국 10

15) 한국잡지협회가 해마다 시상하는 ‘잡지의 날’은 “국민 계도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선인들의 행적을 새롭게 기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잡지를 만들어서 건전한 언론의 구실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거행된다. 박기세의 행적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16)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혼탁하고 서로 퍼 볼 수 없도록 공색한 생활 속에서도 교양과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좋은 인간성을 배양하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과 협력하여 항상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진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을 배양하는 것이 종자를 위한 기름진 땅에 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소망일진대, 이 중요한 시기에 기틀을 잘 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월간지 <여학생>을 창간함에 있어 이 교양지가 회의에 빠진 우리 여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청량제가 될 수 있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창간사를 대신합니다.” 박기세, 『창간사』, 『여학생』, 1965년 12월호, 75쪽. (이후 권호만 표기)

대 여성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사춘기이다.

창간호에 실린 강신재의 소설 『유라의 가을』은 사춘기에 대해 인식하는 10대 소녀의 목소리를 재현한다. 유라는 프랑스에 가신 부모를 떠나 공부를 위해 이모댁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모의 딸 수옥이 유라를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소설은 이를 사춘기의 탓으로 돌린다. “내분비물의 언밸런스”로 인해 복잡한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sup>17)</sup> 자신의 몸의 차이를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도 사춘기에 이르러서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성확정 수술을 시도하기도 한다.<sup>18)</sup> 즉 발단은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이다. 특히 가출은 하이틴의 가장 큰 문제로 자주 다루어진다. 10대들이 봄에 가출을 많이 하는 것이나 가족과의 문제로 갑작스레 가출을 결심하는 것 등은 사춘기의 의학적, 심리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명되는 것이

17) “유라 자신, 어릴 때에는 달리 공연히 흥분하는 일이 있었고, 공연히 죽을 만큼 슬피 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분비물의 언밸런스(불균형)에 의한 사춘기 현상이라고 어느 책에선가 읽은 적도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도, 수옥이도, 하나 뉘의 완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 발달해 가는 도중, 지금 어딘가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못한 데를 딛고 선 중인가보다고, 그런 궁리도 하였다.” 강신재, 『유라의 가을』, 1965년 12월호, 128-138쪽.

18) 중학교 3학년 15세 이순덕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가 되어 이 연구로 개명하였다. 2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이 학규씨의 장남으로 이씨 가문의 혈통조차 이어가게 된 것이다.”(182) 이에 따라 그(녀)의 개성은 문학소녀에서 축구부장으로, 가사실습에서 농업실습으로 바뀐다. 당시의 기술력과 맥락을 살펴볼 때, 이순덕 양은 중성으로 태어나서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조되는 것은 그녀가 여성일 때도 남자같이 외향적이고 힘이 셨다는 점이다. 별명이 '육군대장', '황소' 등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학에 취미가 있고 펜팔을 즐기기도 하는 등 여성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불안을 느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고민이 커졌고 자신이 불구자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이다. 『전교생이 연인이지요 성전환 여고생의 제2의 이상』 1965년 12월호, 182-188쪽.

다.<sup>19)</sup> 10대 소녀를 특징짓는 데 사춘기의 감상성이 핵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학의 권위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남자는 과학적, 분석적이지만, 여자는 감성적이 된다는 주장은 의사나 이학 교수의 이름 하에 유통된다. “하루 밤 사이에 소녀의 마음은 돌변을 해버린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기는 자기 이외에도 아무도 짐작을 할 수 없다. 가령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읽은 소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기와 가까운 여성의 결혼 같은 것들도 계기가 될 것이다.”<sup>20)</sup>라는 과학의 목소리는 여학생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비합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불량소녀의 수기에서도 반복된다.

오영희는 병원집 딸로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3~4달에 한 번씩 자살을 기도한다. 손목을 긋고 피가 흐를 때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고백이다. 이에 대해 수기를 쓴 본인은 자신이 정말 죽고 싶은

19) 1965~70년 사이에 발간된 『여학생』 중 사춘기와 관련된 특집은 다음과 같다. 「십대의 한계」, 1966년 10월; 「아름다운 청춘을 위하여」, 1966년 11월호;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십대의 자살」, 1966년 12월호; 「일선교사의 관측과 교단에 온 위기」, 1967년 11월호; 「십대의 의학」, 1968년 2월호; 「바람에 바람에 청산별곡」, 1968년 6월호; 「십대의 지대」, 1968년 7월호; 「신학기의 학원생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사색을 위해」, 1968년 10월호; 「십대를 치루는 상야」, 1968년 12월호; 「그날: 정기에방손님 연구」, 1969년 2월호; 「학교의학에 대한 제안: 순결교육 지침서와 학교당국의 이런 인식은 어떨까?」, 1969년 3월호; 「불가사의 심장: 사춘기군 해학에세이」, 1969년 4월호; 「틴 에이지문화」, 1969년 5월호; 「십대, 그 개화를 위한 취주악」, 1969년 8월호; 「십대의 계절풍」, 1969년 11월호; 「무엇이 여학생들을 자극하는가」; “정신의 급격한 발달을 맞는 소녀기엔 짜증과 불만이 많다.” 「열이 타는 젊은이의 가슴」; 「세상이 싫어, 살기가 싫어」; “자기 몸속에 ‘불’을 느낄 때 소녀들은 당황한다. 갖가지 매스컴이 전하는 성의 개방 풍조는 ‘순결’을 위협한다. 여학생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여성이 될 수 있다.” 「그건 안 돼 잊어야 돼」, 1971년 7월호; 「방황하는 십대의 기출」, 1972년 4월호;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양」, 1972년 4월호 등.

20) 최신해, 「여성으로서의 십대의 위치」, 1968년 2월호, 108~109쪽.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문하고, 가족들 역시 센터멘탈한 십대의 반항 정도로 치부한다.<sup>21)</sup> 10대의 자살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부르주아 여고생의 예민한 감수성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함께 실린 이상혜의 수기 역시 사춘기 여고생의 감수성 탓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이다. 자신과 이름이 같은 착한 큰 상혜가 싫어서 홈룸박스에 들어있는 친구들의 건의사항에 손을 대고, 그로 인해 선생님으로부터 반 전체가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아주 사소한 반항심리, 혹은 투정으로 읽힌다. 이는 자신이 경쟁자로 생각하는 님은꼴 큰 상혜가 나서서 자신이 했다는 거짓고백을 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는다. 상혜의 고백에 대해 “난 네가 싫단 말야.”라고 외치는 화자의 모습은 청소년소설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sup>22)</sup>

자살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오영희는 실존적 고민과 직면해 있고, 자신의 더블과 같은 큰상혜와의 분리의식에 날을 세우는 이상혜의 모습은 자아의 고유성, 개성의 문제와 맞닿는다. 그러나 『여학생』은 이를 모두 사춘기 여학생의 예민함과 까다로움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로 소개하고, 이들을 ‘불량소녀’로 명명한다. 소위 ‘소녀성’으로 불리는 이들 특성은 과학의 입을 빌려 ‘불량소녀’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친구의 입장에서 불량소녀의 행적을 기록하는 ‘불량소녀를 벗한 마음의 행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이 친구를 ‘불량소녀’로 명명하는 데는 개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깡패, 연애대장, 노라 등의 별명을 가진 속자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한에서 내 행동의 구속을 받진 않겠어. 그것이 나의 모랄이야.”라는 모

21) 오영희(M여고 2년), 『여재』, 1966년 9월호, 232~237쪽.

22) 이상혜(P여고 1년), 『HR복스』, 1966년 9월호, 238~242쪽.

랄론으로 모범생인 필자를 화나게 만든다.<sup>23)</sup> 숙자의 사례처럼 학교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여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웃긴 이야기를 한다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포함된다. 영어선생님과 교제한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고민<sup>24)</sup>도 불량소녀의 수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선생님과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소문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제소녀의 너울’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성이 강한 소녀들에 대해 불량소녀라고 명명하는 것은 사춘기 소녀들의 심리적 특성의 일부로 설명된다.

또한 사춘기 여학생에 대한 과학담론은 여학생의 순결 교육으로 이어진다. “장차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미래의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오늘의 한국소녀들이 얼마나 건실한 사고방식과 인생관과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당면해 오는 제문제들 앞에서 성실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목소리는 여학생들이 건실한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예비 모성이라는 점에서 찾는다.<sup>25)</sup> “한 여성으로서, 장차 사랑받는 남편에 대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헌신의 미덕을 닦고, 거기서 생겨나는 나의 생명의 연장인 자녀들의 양육이 있을, 오늘의 소녀 시대에 배금주의에 젖어서 자기를 잃는다는 것은 장차 자기의 갈 길을 잃는 것 밖에 안된다”는 연대 철학과 교수 조우현은 “육체의 포기는 곧 인간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단정지으면서, 여학생들을 예비 모성으로 호명한다.<sup>26)</sup> 이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뿐 아니라 공포를 과장하

23) 강경자, 『방관자는 싫다』, 1966년 8월, 266~271쪽.

24) 장미순(S여고 2년), 『소문』, 1966년 11월호, 342~346쪽

25) 『특집 10대 위에 우는 사랑의 종소리』, 1967년 12월호, 100쪽.

‘사랑의 종’은 오후 10시에 사랑의 종을 울려 청소년들의 귀가를 종용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귀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1965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의 이름이기도 하다.

26) 조우현, 『배금주의 앞에서의 오늘의 한국소녀 지켜져야 할 인간의 존엄성』, 1967년

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여학생』 1968년 2월호의 『10대의 의학 특집』에서는 십대의 성윤리가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성관계도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부유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여학생 시절 십대의 처녀가 단 한번 혹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혹은 아이를 출산했을 것인가?”라는 괴담을 통해 사춘기를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기가 쉬운 시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기에 “여자로서 한번 실수를 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인종주의적 공포를 주입한다. 그러면서 의학 교수인 글쓴이의 직업을 살려 “정조관념을 강조하는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류를 막아야겠다고 본다.”는 당부로 끝을 맺는다.<sup>27)</sup> 백인 소녀가 사춘기 시절 혹은 남자에게 강간당한 결과, 대학 졸업 후 결혼한 백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혹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식의 비과학적 담론을 ‘과학’의 이름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순결은 도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학의 외피를 입은 순결담론은 ‘명량한 학원생활’의 토대로서 제시된다.<sup>28)</sup> 그러나 담론 속에서 여학생들의 순결은 늘 위협당하는 것이자 의

12월호, 106~108쪽.

같은 특집에서 승실대 철학과 교수 안승욱은 “1.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2. 직책에 대한 윤리. 3. 과학에 대한 사랑 4. 진실에 대한 사랑 5. 자타의 인격 존중”이라는 현대판 삼강오륜을 발표한다. 이는 직업에 대한 성실성과 과학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산업주의적 주체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승욱, 구도덕 앞에서의 오늘날의 한국소녀-현대의 삼강오륜, 『여학생』 1967년 12월호, 110~112쪽.

27) 강영선, 『생리적으로 본 십대의 과정』, 1968년 2월호, 104~106쪽.

28) 정희경(성대 여학생처장), 『명량한 학원생활과 성의 인식』, 116~119쪽.

서로의 꿈을 실현해 갈 동반자로서의 이성을 맞을 심신의 준비를 해 나가는 데에 사춘기 성의 인식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결코 성 발달에서 오는 성에너지를 직접 발산해 버리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결은 생명같은 나의 원

심받는 것으로 재현된다. 1962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비행소년들은 거의 '불순성교'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비행청소년 여자의 90%, 남자는 63.4%가 불순성교의 경험이 있으며, 남자들에게 성교상대를 조사한 바 여학생이 42.3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여학생들의 '행실'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sup>29)</sup> 이는 성과학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30)</sup>

### 3. 제3자화된 불량소녀와 수기의 형식적 불일치

『여학생』이 여학생들을 위한 잡지를 표방했으나 여학생이 직접 지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안테나' 코너와 문예란, 그리고 수기들밖에 없었다. 특히 불량소녀에 관련된 수기는 『여학생』에서 가장 장기연재된 코너이자 전면에 등장하는 꼭지이다.<sup>31)</sup> 이는 불량소녀 수기가 대중적 시선을 끌기에 적합했으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음을 알려준다. 불량소녀 수기는 처음에는 「일선교사를 울린 불량소녀라는 이름」이라는 제호 하에 교사나 카운슬러의 글을, 1966년 3월호부터는 「불량소녀를 벗한 마음의 행로」에서 문제학생의 친구의 입장에서

---

숙한 사람됨을 위해서만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알찬 오늘날 학교생활은 순결을 담아줄 방파제와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29) 『한국의 숙제(3) 소년범죄 해부』, 『경향신문』 1964.12.21.

30) 권인숙은 1970년대 이후로는 순결교육에 대한 강화가 『여학생』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31) 『여학생』은 '새로 등장한 여학생의 신교양지'라는 카피를 중심으로 하단에 「사랑과 죽음의 교차로」와 「불량소녀 수기」를 중심으로 광고를 신는다. 동아일보, 1965년 11월 20일. 첫 호에서는 주요 기사를 언급하였지만, 이후에는 목차를 신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의 고민을, 9월호부터는 『문제소녀란 너울을 벗는 날은 언제』로 제호를 바꿔 문제학생 본인이 직접 자신의 수기를 기록한다. 이후에도 『17세의 기록 미스테인 여학생 10경』(1968년 4월호), 『사건 여학생』(1970년 6월)을 통해 불량소녀, 문제학생에 대한 수기를 지속적으로 연재한다.

이처럼 『여학생』이 불량소녀를 고정적으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학생』은 이를 계몽적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불량소녀가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고 탈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고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벗과 후배를 사랑하신다면 아낌없이 본사에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인간애가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으로 이끌고, 그래서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200자 원고용지 20매 내외. 게재분은 사례합니다”<sup>32)</sup>

이 광고에서는 불량소녀의 수기가 친구와 후배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인간애’의 표현이며, 사회의 명랑성을 창출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불량소녀와 관련된 수기의 목적이 계몽과 명랑성 도모에 있음을 보여준다. 불량소녀의 고백을 통해 여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기의 자기반영성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글쓰기 양식이다. 그러나 실제 수기를 보면 이러한 목적과 길항하는 다른 목소리가 발견된다.

자기고백 형식의 글에는 사춘기의 정서적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10대 여성의 자살기도나 학교내 갈등과 같은 개인의 내면 갈등을 여성적 감수성으로 포장하여 불량소녀 문제를 개인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고백과 달리 문제의 원인을 가족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 불량소녀 수기 중 다수는 가족 내의 문제로 인해 문제를 일으

32) 『문제소녀란 너울을 벗는 날은 언제』 알리는 말씀, 1966년 9월호

키는 경우이다. 소년원과 같은 교화시설 체험담에서도 그러하다. “독을 말끔히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저 슬픈 가난을 추방해 달라. 모진 냉대와 부끄러운 경멸과 아픈 무관심을 사랑으로 돌이켜 달라.”<sup>33)</sup> 며 비행의 근본적 원인이 가난이나 화목하지 못한 가족에 있음을 지적한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죄를 범한 소년 소녀들을 집단 보호, 교정하는 소년원의 낮은 밤너머 새어 나오는 소리들은 원망과 분개에 참회와 희망이 엇갈려 있다. 그들 대부분이 가난과 결핍된 사랑의 희생자들.”이라는 고백은 불량소녀 중 상당수가 가정 문제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sup>34)</sup>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영란의 목소리와 수기의 결말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를 대신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김영란은 회사 동료로부터 계 사기를 당하고 충동적으로 공금을 횡령한다. 그녀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에게 혼나기도 한다. 자신과 같은 방을 쓰는 절도 상습범인 다른 소녀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란은 스스로 자신을 ‘문제소녀’와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범죄는 부모와 사회 탓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수기는 “소년원이라면 아주 나쁜, 버려진 아이들이 옥살일 하는 줄만 아는 사회인들이 따뜻한 보호 속에 죄를 깨끗이 뉘우치고 나가는 나와 동료들을 저 벽에서 나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어머니처럼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혼연히 맞아주길 바라고 싶다.”로 끝난다. 이는 수기의 초중반에서 보여준 당당

33) 1966년 3월호, 168~173쪽.

34) 김영란, 「(논픽션, 하나의 현실) 소년원의 답은 낮지만」, 1969년 6월호, 169~173쪽. 김영란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중생이었으나 아버지의 탈선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큰 회사의 급사로 취직한 김영란은 선배의 권유로 10만원짜리 계를 들고, 그 돈으로 집을 계약할 계획을 세우지만, 계주가 도망갔다는 말에 좌절한 나머지 회사돈 10만원을 횡령한다.

하고 자신감에 찬 태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수기의 글쓰기가 독자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족을 고발하는 도구로 수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철도청 고급관리였던 아버지가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회사를 그만둔 후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에 문제가 생기자 딸인 ‘나는 아버지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런 딸을 어머니는 도리어 야단치고, 나는 그로 인해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게 된다. 수기는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로 인해 ‘밤고양이’가 된 자신의 사연을 고백한다.<sup>35)</sup> 이 고백을 통해 오문실은 불량소녀인 자신이 아니라 소녀를 지켜주지 못한 가족을 고발한다. “내가 없어져야겠네요. 그게 좋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사나운 아이가 됐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엄마는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잘까.”<sup>36)</sup>라는 독백은 수기가 자기 반성의 형식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고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발은 소년계 경찰의 고백과도 공명한다. 남대문경찰서 소년계 소속의 학사경관인 김경희는 “어떤 때는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자기 자식이 저렇게 되게끔 했을까 하구요…….”라며 가출청소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을 묻는다.<sup>37)</sup> 이는 반성과 회개의 형식에 고발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여학생』의 불량소녀 수기가 반성과 고백, 계몽의 의도를 비껴나고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절은 『여학생』이 불량소녀를 제3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여학생』에 실린 수기의 특징은 카운슬러와 같은 선생님이나

35) 오문실(여고 2년), 「밤고양이의 변명」, 1966년 11월호, 347~351쪽.

36) 위의 글, 351쪽.

37) 권오운 기자, 「르포타주 가출, 꽃샘바람 따라 악의 계절에 오는 서울」, 1968년 5월호.

친구의 입을 빌려 고백하는 방식이 더 먼저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흔히 수기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쓴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불량소녀에 대한 수기라고 하면 불량소녀의 자기 고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여학생』은 불량소녀에 관한 수기를 전면적으로 광고하고 다루면서도, 그 수기의 주체를 선생님, 동료, 불량소녀 본인, 기자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1970년 6월부터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 경찰 등이 여학생이 엮힌 사건을 소개하는 『사건 여학생』이라는 시리즈물로 바뀐다. 『사건 여학생』은 “사춘기 소녀 특유의 반항 심리와 유혹에 약한 나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빠져든 수난의 내용과 원인 그리고 선도된 경위가 사건을 직접 취재한 일선기자의 날카로운 필치로 엮어질 것”을 예고한다.<sup>38)</sup> 이는 기존의 수기형태에서 더 나아가 불량소녀를 타자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기 모집 공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량소녀를 통해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량소녀로 명명되는가를 통해 불량소녀의 낙인을 재생산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량수기의 내용은 한층 자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는 불량소녀 수기가 계몽적 효과뿐 아니라 일탈행위의 재현을 통한 오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9)</sup>

『여학생』 창간호는 새어머니의 동생이 가정교사를 하던 중 여학생을 성폭행, 임신한 여학생의 사연을 다룬다. 사연을 제보한 사람은 S여고의 카운슬러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다. 여학생의 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문제를 알려,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학생의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원만한 해결

38) 1970년 6월호, 142쪽.

39) 일탈행위의 재현이 주는 재미와 쾌감은 불량소녀 수기가 인기를 끌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성에 대한 고찰은 후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로 보는 것이다.<sup>40)</sup>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학생』이 계몽과 교훈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사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카운슬러의 목소리는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학생의 낙태를 돕고, 학교에 비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여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량소녀는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 여학생을 불량소녀로 만드는 것인가. 이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이를 ‘불량소녀’로 명명함으로써, 이유를 불문하고 임신한 여학생은 불량하다는 낙인을 찍을 뿐이다. 이는 『여학생』이 『사건 여학생』에서 사랑과 연애로 인한 파국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다.<sup>41)</sup>

친구들이 불량소녀를 기록하는 수기인 『꽃샘바람』은 모범생인 ‘나의 입장에서 거짓말과 컨닝, 도둑질을 일삼는 강애를 기록한다. 여기서 강애의 불량행동은 친구인 ‘나의 우정으로 치유된다.’<sup>42)</sup> 특히 이들의 문제는 새어머니라든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등 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친절한 새어머니에게 반항하는 자미<sup>43)</sup>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양쪽을 오가는 미나<sup>44)</sup> 등의 사연은

40) 손명자(가명)(S여고 카운슬러), 『상처를 준 외숙을 찾던 S양』, 1965년 12월호, 291~294쪽.

41) 『죽음으로 돌아간 사랑놀이』 1971년 7월호; 『미쳤어, 어느 사랑과 죽음』 1971년 10월호 등.

42) 최규숙, 『꽃샘바람』, 1966년 3월, 342~347쪽.

카운슬러 선생님과 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컨닝, 도둑을 일삼는 강애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낸다.

43) 윤지숙, 『무심천 이쪽저쪽』, 1966년 6월호, 298~303쪽.

자미는 친절한 새어머니에게 반항하고, 가출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 교실에서도 항상 불만에 차서 조용한 공부시간에 괴성을 지르거나 지나친 반말로 선생님에게 반항한다.

44) 손정희, 『싱싱한 낙엽』, 1966년 8월, 272~275쪽.

‘정상가족’을 벗어나면 아이들을 ‘불량소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도 돈을 벌기 위해 악착 같은 어머니가 딸의 교육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으면 불량소녀가 된다.

권순영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가족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돈벌이에 바쁜 부모나 새어머니 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소녀들이 전과가 있는 남학생들의 꼬임에 넘어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권순영은 부모의 구박이 심했고, 부모의 사랑을 만족하게 받지 못했으며, 부모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들의 흥미를 키워주지 못하고 방임한 것, 자식의 비뚤어짐을 사전에 예방할 마음조차 없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sup>45)</sup> 법장에서 들리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제호로 실린 이 글은 불량청소년 문제가 한국전쟁과 국가, 사회의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학생』은 불량소녀를 과잉재현함으로써 박정희 체제가 불량청소년 명랑화 담론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학생풍기에 관한 동아일보 좌담회는 이러한 온도 차가 잘 드러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고등대학 당국자들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일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의식의 개방성, 폭력, 극장출입을 빌미로 과잉일반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문교부 관련자인 공무원들은 학생풍기가 대단히 문란해졌고 심각한 사회문

---

아버지, 어머니, 고모 집을 오가며 신상조사카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던 미나는 혼자 등산을 갔다 사고를 당해 죽고 만다. 나는 미나의 죽음이 자살은 아닌지 생각한다. “가장 원만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던 그의 이면에 그런 환경이 깔려 있고 그것을 내부로 축적하다 축적하다 소녀의 돌발적인 결단으로 흐린 날 산을 올라갔는지도 모른다.”(275)

45) 권순영, 『17세의 기록-미스테이크 여고생 10명:가정의 비정이 저지른 사회악의 본보기』, 1968년 6월호, 334-337쪽.

제로 대두했다고 지적하며, 도의교육의 경시와 정조관념의 희박을 원인으로 꼽는다. 유물론적 인생관에 빠진 학생들에게 정서교육을 실시하고 제복(교복)을 도입함으로써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문교부의 입장이다.<sup>46)</sup> 불량소녀의 과잉재현은 교복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는 불량소녀를 선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시각적 구별짓기를 통해 학생 집단을 창출하여 순화하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 여학생의 투고에서도 발견된다. 1967년 11월호는 『특집 여학생이란 할인받는 지옥사회 캠퍼스를 어둡게 하는 거리의 교육』이라는 특집을 통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현대의 상업문명이 여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담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고생의 답변은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 서울 예고 2학년인 이옥주는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고 배우며 또 앞으로 이 새로운 사회를 세워나가야 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고 질문을 던지며 “눈을 뜨시고 좀 자녀교육을 위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나쁜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다 원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한다. 여학생의 불량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사회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옥주는 “주위 사회에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고 그러므로 또한 유혹엔 아직은 익숙지 못하고 눈이 없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자”며 학생의 일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장한다.<sup>47)</sup> 이러한 주장은 불량소녀 선도 담론을 생산

46) 『학생풍기문제를 얘기하는 좌담회』, 『동아일보』, 1955.5.19.~22. 참석자는 이정희(국회문교분위원), 안용백(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정해수(문교부장학관), 조재호(경기고교장), 권중휘(서울대 학생처장), 심태진(선린중 교장), 사회 김동명 등이다.

47) 이옥주, 『학생의 변』, 1967년 11월호, 213쪽.

해내는 기성 세대와 체제에 대한 불신과 재질문이자 수기에서조차 제3자화된 불량소녀의 과잉재현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다.

#### 4. 결론

1964년 9월 30일 『가정법원의 1년』은 “가정과 사회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가난 속에 내동당이 치다시피한 소년 절도와 소녀창녀들을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갱생시키고 구호해야 하느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sup>48)</sup> 그러나 소녀를 갱생시킬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없다. 소녀는 갱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 한국사회가 불량소녀를 재현한 이유와도 통한다. 권명아는 소년범죄가 본격적인 규율과 훈육의 대상이 된 것은 박정희 체제라고 지적하며, 학생 일반과 문제 학생, 학생 내의 성차와 연령 차이를 구별하여 범주화함으로써 학생을 역사적, 정치적 주체로서의 집단과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4.19 이후 부쩍 늘어난 사회의 혼란”을 학생들의 문제로 상정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희망의 대상”에서 “사고”의 주체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4.19 이후 풍기문란에 대한 경계담론이 혁명의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였던 학생을 규율의 대상으로, 광장에서 가정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다.<sup>49)</sup> 이는 『여학생』의 불량소녀 수기가 불량소녀를 개인의 돌발행위로 재현하는 것에 상응한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은 순간의 선택에도 불량소녀가 될 수 있으니 가정과 부모가

48) 『가정법원의 1년』, 『경향신문』 1964.9.30.

49) 권명아, 『이브의 범죄와 혁명』,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255~277쪽.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담론은 불량소녀를 가정으로 재배치하려는 일환이다. 개인의 잘못은 고백과 반성을 통해 다른 소녀들에게 반면교사로 작동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사회는 다시 정화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유통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여학생으로서의 몫을 할당하는 치안의 영역이다.<sup>50)</sup>

과잉재현된 불량소녀들은 치안의 이름으로 통치의 대상이 된다. 해방 이후 한국의 공론장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인종주의가 작동하듯이, 안전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삶에 내재하는 위험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차 고양될 것”이라는 논리는 “열등한 인종이 사라지고, 비정상의 개인이 제거된다면 종의 퇴화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나는 좀 더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형태로 바뀐다.<sup>51)</sup> 즉 안전의 테마가 민족국가의 모든 정치를 포섭하며, 이 과정에서 인민-민족과 민족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은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토대로 자기 몸의 통제권을 행정과 규칙에 자진해서 내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량소녀들의 자기 반성과 공론장의 담론은 치안의 범주에서 작동한다.

1960~70년대 산업화를 추동한 세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지탱했던 10대 여성노동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소녀로서 아동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량소녀와 순결한 소녀의 이분법이 강화될수록, 10대 여성노동자들은 보호해야 할 ‘소녀’로부터 멀어진다. 하얀 칼라의 교복을

50) 국가가 인구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에 속해야 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국가적인 것과 비국가적인 것 등을 매순간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치(police(폴리차이))는 국력을 내부로부터 증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총체를 지칭한다.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율김, 난장, 2011.

51) 사카이 다카시, 『통치성과 자유』, 오하나 율김, 그린비, 2011, 171~173쪽.

입은 여학생 이외의 다른 10대 여성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환상적인 여학생들의 존재는 불량소녀가 통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소녀들의 수기는 이 매듭점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균열의 지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여학생』

『동아일보』

『경향신문』

뼈나드 코간(사회복지 고문관 청소년 불량), 『한국 청소년 불량문제에 관한 보고』,  
주한미국 경제협조처 기술협조부 지역사회개발국 사회복지과, 1960

### 2. 논문과 단행본

권명아, 『이브의 범죄와 혁명』,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255~277쪽.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김원, 『식모는 위험했다?-산업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을 둘러싼 담론들』, 『여공  
1970』, 이매진, 2005, 127~189쪽 참조.

보건사회부, 『부녀행정 40년사』, 1987, 49쪽.

김원, 『소년원을 탈출한 아이들: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2011, 383~413쪽.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08, 133~138쪽.

사카이 다카시, 『통치성과 자유』, 오하나 옮김, 그린비, 2011, 171~173쪽.

Balibar, "Is there a Neo-Racism?", *Race, Nation, Class*, verso, 1991, pp.17~28.

## Abstract

### The Topology of a Diligent Girl in 1960's Korea

Heo, Yun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discourse about a diligent girl in 1960's Korea. Park's regime gave cognitive turn to juvenile delinquents from national frame to personal problem. Through the girl's confession and reflection, the community could re-purify and the girls reclaim their name. This is the public order, or security's field. Park's regime produced political expectation about security force, censorship, and sexuality. These were made to enlighten people to be modest. But the girls' autobiography draw a line to escape from this expectation. The nervous, fragile representation of a girl who make troubles come across the public order. The volatile voices do not reflect, but make accusation of their delinquent parents, school, and community. By doing so, the girls have followed the security and the same time, they broke the rule.

The image of a girl in school uniform is the project of Park's regime. The regime made teenage girls become into a school girl. But there also was a girl who worked so hard to make profit for their family, community, and country. These workers were in the girls' shadow. The Diligent Girls are over-representation of the (w)hole in the system.

(Key Words: Diligent Girl, autobiography, Park's Regime, adolescent girl)

Ⅰ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